



IBKS Spot Comment

코스닥리서치 센터장

이건재

02) 6915-5676
geonjaelee83@ibks.com

RA

민지윤

02) 6915-5475
minjy56@ibks.com

[코스닥 시장]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What's New:

5월 13일 금융위원회는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시행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상장폐지 개혁방안은 지난 2월 부실 기업을 신속하게 퇴출함으로써, 코스닥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고자 발표되었다.

개혁 방안은 크게 4가지다.

첫째, 시가총액 요건 강화다. 시가총액 기준을 상향하는 것뿐 아니라 상향 계획을 매년에서 반기로 기준을 앞당겼다. 일시적 주가떠우기를 통한 회피 등의 우회로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 적용 방식 또한 강화되었다.

둘째,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소위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 신설이다. 특히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이후 추가적인 주식병합/감자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요건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장치도 포함되었다.

셋째, 기존에는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만 상장폐지 요건이었으나 반기 기준으로 확대한다.

넷째, 공시위반 요건 강화다. 최근 1년간 공시별점 기준이 15점에서 10점으로 하향조정됐으며, 중대하고 고의적 위반의 경우 별점과 무관하게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되어 기업들의 정보공개에 대한 책임이 높아졌다.

표 1.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

구분	세부 항목	변경 내용	적용 시기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	시가총액	기존 상향조정 계획을 조기화(매년 →매반기)하여 '26.7월 150억원 → 200억원, '27.1월 200억원 → 300억원으로 강화	계획 조기화 (매년 →매반기)
	동전주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를 상장폐지 요건으로 신설 1) 최근 1년내 주식병합/감자를 한 경우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후 추가 주식병합/감자 금지 2)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이후 10:1 초과 주식병합/감자 금지	'26.7.1일 시행
	완전자본잠식	현재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만 상장폐지 요건이나,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추가	'26.6월말 기준 반기보고서부터 적용
	공시위반	현재 최근 1년간 공시별점 누적 15점 기준을 10점으로 하향조정하고,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은 1회만 위반해도 상장폐지 심사대상에 포함	'26.7.1일 시행

자료: 금융위원회, IBK투자증권

www.ibks.com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리서치본부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해 최종 결정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So What?:

매년 90개 이상의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신규 진입하고 있으나, 퇴출 기업 수는 상장 기업 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사업 성과 부진, 투자자와의 소통 부족, 자본잠식 등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부실기업이 시장에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왔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해왔다. 이번 상장 유지 요건 강화와 부실기업 퇴출 조치는 코스닥 시장의 질적 개선과 투자자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표 2. 코스닥 시장 신규 상장 및 상장폐지 결정 종목 수

(단위: 건)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신규 상장	99	111	114	110	94
상장폐지 결정	22	16	8	20	38

자료: 금융위원회, KIND, IBK투자증권

표 3.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 기업(63개)

(단위: 억원)

기업명	시가총액	기업명	시가총액
이퓨처	199	지엔코	151
에스폴리텍	198	예선테크	149
이렘	198	엑시온그룹	148
바이오인프라	194	광진실업	148
핀텔	194	프로브잇	148
졸스	193	씨엑스아이	146
롤링스톤	192	세니젠	145
바른손이앤에이	192	케이엠제약	144
판타지오	191	유아이디	143
전진바이오팜	189	비케이홀딩스	140
메디앙스	189	원풍물산	139
크린앤사이언스	189	삼보산업	139
디에이치엑스컴퍼니	187	셀레스트라	136
엘디티	187	올리패스	134
휴맥스홀딩스	187	메디콕스	127
바이온	184	삼영이앤씨	123
골드앤에스	181	듀오백	121
뉴보텍	179	코이즈	116
뉴인텍	178	스타코링크	115
오에스피	176	알파시	105
삼영에스앤씨	175	해성산업1우	102
세진티에스	174	케이이엠텍	95
에스아이리소스	173	투비소프트	76
이노진	170	스큐넥	71
피씨엘	168	아이엠	67
베셀	167	KD	55
케스피온	164	캐리	52
신라에스지	159	더테크놀로지	47
노블엠앤비	159	아이톡시	45
인베니아	154	대호특수강우	24
드래곤플라이	152	소프트센우	22
형지&C	151		

자료: 에프앤가이드Quantwise, IBK투자증권

주: 2026.05.14 종가 기준

표 4. 1,000원 미만 동전주(140개)

(단위: 원)

기업명	증가	기업명	증가	기업명	증가	기업명	증가
모아데이터	996	시그네틱스	822	디젠스	679	서울전자통신	480
현대사료	994	리튬포어스	821	디에스엠	677	애머리지	478
삼화네트웍스	991	코디	815	비트플래닛	672	원팩	477
엔지컴생명과학	990	DH오토웨어	813	씨엔알리서치	667	제이케이시넵스	471
앤씨앤	987	유일에너지테크	806	에코볼트	664	캐리	468
웰크론한텍	985	우리이앤엘 하루틴	804	큐라티스	657	코퍼스코리아	458
우리 엔터프라이즈	982	모아라이프 플러스	803	테라사이언스	654	예션테크	450
지엘팜텍	978	포니링크	799	본느	647	플루토스	439
제이엠아이	977	인크레더블버즈	798	엑스플러스	643	국일제지	436
아이에이	976	웰킵스하이텍	795	한탐	640	파라텍시스 코리아	416
비투엔	974	아우딘퓨처스	794	SBI인베스트먼트	638	EDGC	415
드래곤플라이	973	KS인더스트리	784	이원컴토텍	630	세종메디칼	412
유틸렉스	959	이스트아시아 홀딩스	784	프로브잇	612	노블엠앤비	411
패션플랫폼	950	엑사이엔씨	781	글로벌에스엠	610	링크드	396
라운피플	947	티케이지애강	778	바이온	604	아이엠	396
파라텍	942	셀피글로벌	778	상보	598	엔시트론	392
달리	941	세화피앤씨	770	투비소프트	596	씨엑스아이	391
파루	933	아이윈	769	THE CUBE&	580	소노스퀘어	390
한국캐피탈	931	삼영이엔씨	764	티비씨	550	위지웍스튜디오	379
풍전약품	927	골드앤에스	761	에센테크	549	씨엔플러스	336
드림어스컴퍼니	924	나노캠텍	757	비츠로시스	548	스코넥	327
다이나믹솔루션	916	SGA솔루션즈	754	싸유메디칼	548	CSA 코스믹	326
웨이버스	916	카티스	752	텔콘RF계약	547	아이톡시	312
미스터블루	897	우진비앤지	746	휴림에이텍	525	큐캐피탈	293
시스웍	889	윙입푸드	742	크리스탈신소재	521	이랩	276
엠젠솔루션	887	엔피	724	제이스코홀딩스	521	소프트센	268
비스토스	877	한국비티비	722	컬러레이	520	넥스트아이	263
조아계약	875	위지트	710	알파시	520	에스아이리소스	242
형지글로벌	874	비케이홀딩스	710	케이엠계약	517	비유테크놀로지	229
한주라이트메탈	861	멤레이비티	707	CNT85	514	메이슨캐피탈	215
옴니시스템	857	KNN	703	엔투텍	503	KD	205
케스피온	857	아스트	698	네오이문텍	501	썬에이지	178
베셀	852	디에이치엑스 컴퍼니	693	에스디생명공학	499	앱토크롬	153
삼보산업	847	원풍물산	684	자연과환경	493	대산F&B	145
엣지파운드리	823	손오공	680	코스나인	480	오가닉티 코스메틱	122

자료: 에프앤가이드Quantwise, IBK투자증권
주: 2026.05.14 증가 기준

Compliance Notice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는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참여한 외부인(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등)이 없습니다.

조사분석 담당자 및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